

신안군, 군민·공직자 대상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실시

심폐소생술·자동심장충격기(AED)사용방법 등 자동심장충격기관리자·희망 군민·공직자 대상 다감각 및 스마트 글라스 등 활용한 교육 진행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이달까지 총14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자동심장충격기관리자, 교육을 희망하는 군민 및 공직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위한 이론 및 실습, 자동심장충격기(AED)사용방법 등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은 목포대학교 재난안전기술사업단 및 목포시의료원과 협력해 다감각 및 스마트 글라스 등을 활용한 교육을 진행했다.(공무원 81명, 자동심장충격기관리책임자 61명, 교사 등 20명 총 162명),

다감각 스마트장비를 활용해 현존감과 몰입을 높여 일반인 및 비전

문가를 상대로 학습효과를 극대화했다.

신안군은 도서지역으로 구성돼 있고 의료기관의 부족으로 신속한 처치가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읍·면 지역 공공기관, 종교시설, 선박, 여객선 등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돼 있으며(261대) 정기점검을 통해 신속대응 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일상회복 중, 재택치료자의 심·뇌혈관의 비중이 높은 상황을 고려해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통해 가정내 심정지 사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근 기자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이달까지 총14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자동심장충격기관리자, 교육을 희망하는 군민 및 공직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위한 이론 및 실습, 자동심장충격기(AED)사용방법 등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안군 제공

함평, 배달음식점 위생 교육

함평군에 따르면 최근 함평엑스포공원에서 관내 배달음식점 18개소 업주와 종업원 등을 대상으로 여름철 배달음식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위생·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8일 개장하는 지역 대표 피서지인 함평엑스포공원 물놀이장 개장에 따른 배달음식 수요 증가에 대비, 관광객과 군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먹거리를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군은 이날 ▲식자재 유통기한 준수 ▲조리시설 위생 관리방법 ▲식중독 예방관리 요령 ▲배달함 관리 등을 집중 교육했다.

이와 함께 개인보호구 착용 등 배달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과 친절 서비스 교육 등이 병행 실시됐다.

또한,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도 ▲무등록·무신고 제품보유 여부 ▲위생교육 이수 및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식재료 보관온도 준수 여부 등 위생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이문수 기자

강진군,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 선정

강진군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3년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행복한 삶터 조성 사업'에 최종 선정돼 총 사업비 7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2023년부터 5년간 정부와 지자체가 고품화 및 인구감소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어촌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행복한 삶터 조성, 다(多)가치 일터, 시군역량강화사업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한다.

강진군은 올해 초 예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신전 주민들을 중심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수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마을 회관 및 안길 정비 등 3개 마을 주민 모두가 현장 평가를 준비했다.

또, 추진위원들과 전남도, 해수부 등 관계기관을 방문해 사전에 사업 설명을 하는 등 군과 주민이 하나가 돼 대상지 선정을 위해 힘썼고 지역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더해

졌다. 그 결과 강진군은 '행복한 삶터 조성' 분야에 강원 삼척시 신남마을, 충남 태안군 등 9개 어촌마을과 함께 최종 선정됐으며 총 사업비 78억 원(국비 70%, 군비 30%)을 확보했다.

군은 확보한 사업비로 2027년까지 신전면 일원 어촌지역에 ▲별장갈대습지 습터 복원, ▲송천·사초어울림센터 신축, ▲사초 앞길 안전거리 조성, ▲사초 담장 및 지붕정비 등 어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소득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기 추진위원장은 "금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선정으로 어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어촌의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할 것"이라며 "주민들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박종욱 기자

영암 드림스타트 체험활동 프로그램 추진

영암군 드림스타트는 '떠나요, 드림스칸스' 및 '떠나요, 드림스칸스' 여름 가족 캠프를 추진한다.

'떠나요, 드림스칸스'는 드림스타트 각 가정에서 원하는 체험활동을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직접 계획하고 준비해보는 체험활동을 통해 단순히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이를 통해 내 아이가 원하고 아이에게 필

요한 체험활동을 직접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자 계획한 프로그램이다.

드림스타트 가정은 '떠나요, 드림스칸스' 프로그램을 통해 원하는 체험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이 중에서도 여건상 직접 체험 어려운 가정들은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러한 가정을 위해 드림스타트

에서는 '떠나요, 드림스칸스' 여름 가족 캠프를 추가로 진행한다. 여름 가족 캠프는 '떠나요, 드림스칸스' 추진 범위 내에서 드림스타트 가정 중 여건상 직접 체험이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담당자가 간접 수행해 추진하며 3가정 12명, 소규모로 3회 추진한다. 나주 중흥골드스과 리조트에서 워터파크와 콘도 시설을 이용하며, 1박 2일을 별도 필수 활동 프로그램 없이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이유빈 기자

목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

목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최근 서울 스페이스살림에서 개최된 '제11회 새일센터 우수기관 및 유공자 포상식'에서 우수기관에 수여되는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목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지난해 평가에서 취·창업지원과 서비스 제공 부분, 센터 운영 부분 등 전반적인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한편 구인·구직 발굴 및 상담 분야에서는 최고점을 받는 등 전국 158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중 상위 10%에 포함돼 종합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여성의 안정적인 경제활동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경력단절 사전예방과 취·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성태 기자

무안, 노후기관·장비·설비 대체사업 지원

무안군(군수 김산)은 올해 연료비 절약과 어가 경영부담 경감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를 연안어선 30척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노후기관·장비·설비 대체사업은 저효율(육상기관 포함) 기관 및 사용연수가 많은 노후기관의 대체, 어선의 안전과 복지 등을 위한 장비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 품목에는 해상용 디젤기관, 선외기 엔진, GPS플로터, 어군탐지기, 레이더, 양승기, 양망기 등이 포함된다.

군은 관내 어선어업인을 대상으로 올해 사업대상자를 모집했으며, 총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투입해 7월까지 기관 대체 8대, 장비 보급 22대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자에게는 수협중앙회의 단가계약이 체결된 장비 금액의 60%가 지원되며, 군은 지난 2012년부터 10년간 총 14억 원을 투입해 225척의 어선에 기관·장비를 지원한 바 있다.

김산 군수는 "어선보험, 어선원보험, 어업인보험료 지원사업 등 어업인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전한 조업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민재 기자



영암은이런곳이여 Jangseong 장성군